

중학생의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 선 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A Study on the Factors in Relation to Attitude and Behavior of Drug Abuse in Middle School Students

Sun-Hee Ha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factors in relation to attitude and behavior of drug abuse in middle school students, and provide guidelines for drug education for adolescents. The summary of results was as follows: 1. The mean of attitude about drug abuse were 3.44 (1st graders), 3.40 (2nd graders), 3.20 (3rd graders) of full score 4.00. Attitude about drug abuse related to sex in girls is more desirable than boys' ($p < 0.001$). 2. 3rd grade students experienced smoking and alcohol use to the highest degree in the last one month. Boys had more experiences of smoking and alcohol use than girls. Most motivations of students' drug abuse were curiosity and the influence of peer. 3. The higher the scores of self-assertion is, the higher the scores of attitude about drug abuse is. And the higher the scores of problem solving ability is, the higher the scores of attitude about drug abuse is. 4. Self-asser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ttitude about drug abuse. Otherwise, the attitude about drug abus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rug abuse behavior.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powerful predictor to drug abuse behavior was the attitude about drug abus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assertion is accountable factor to the attitude about drug abuse. This result indicated that effective problem solvers or self-asserters have desirable attitude about drug abuse and less possibility to abuse drug. In conclusions, school drug education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bility of self-assertion by which students cope against peer pressur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by which students identify or discover effective strategies of coping with problematic situations encountered in daily living.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약물은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 전반을 총칭한다. 따라서 후자의 개념에서 볼 때 흡입제나 마약류뿐 아니라 술이나 담배도 모두 약물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된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5).

약물남용이란 행동, 인식력, 감정을 인위적으로 변

화시키고자 자의에 의해 약물을 불법적,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주왕기, 1989).

청소년기는 사춘기에서 시작하여 성인기로 이행하는 중간 과정으로 그 연령 범위는 11세에서 20세이며, 이 시기는 발달 단계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업에 직면해 있어 새로운 스트레스와 불안이 발생하며 주변 또래 친구들의 압력을 무척 많이 받는 시기여서 특히 약물의 유혹에 취약한 시기이다(최선화, 1991).

한편 청소년들은 욕구수준은 급속히 상승되나 욕구 충족도가 이에 못 미치므로 불만도가 높아져서, 억압된 욕구의 비정상적 처리의 한 형태로 약물에 의존해서 쉽게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김소야자, 1987).

1960년대 미국에서는 청소년 사이에 약물남용이 폭발적으로 번지자 약물교육을 시작했지만, 약물남용에 대한 불확실한 지식을 갖고 유해성에 관한 정보 전달에만 급급하였다. 그 결과 약물교육의 실패 및 약물남용자 증가, 남용약물의 다양성, 복합 약물남용 현상, 법을 무시하는 풍조 등이 유발되었다(주왕기, 1989).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현재 미국 약물교육은 정신 사회적 접근을 하고 있어, 사실적인 정보 제공 이외에 또래의 압력에 저항하는 거절기술을 포함한 자기표현 기술, 대중매체 등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포함한 문제해결 기술, 스트레스 감소, 자존감 향상 등을 위한 정서적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Ramirez, 1997; Dusenbury 외, 1995; Ellickson 외, 1993; Cain 외, 1992; Fredisdorf, 1989; Goodstadt, 1989; Young 외, 1989; Brink 외, 1988; Engs 외, 1988).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소영, 1997; 보건복지부, 1996; 서울시 교육청, 1996; 강윤주 외, 1995; 주혜경, 1994; 김소야자 외, 1993; 이유립, 1992; 서울시 교육연구원, 1991).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은 약물교육에 있어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력이나 거절기술 같은 자기표현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이끌기 이전에 실제로 문제해결력이나 자기표현력이 높은 학생들이 약물남용에 있어 바람직한 태도를 갖고 약물남용 행동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자기표현력과 문제해결력은 학습을 통해 변화 가능한 개념이므로(Rakos 외, 1980; Adler, 1984), 그 연구 결과가 실제 교육 내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일차적 예방을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일반 청소년, 주로 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약물남용이 점차 저연령화되는 추세로 보아 기존 연구의 주대상이었던 고등학생 뿐 아니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 약물남용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사회학적 요인(학교 가족 친구 관련 특성),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등-을 분석하여 중학생 약물남용 예방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년별 및 성별로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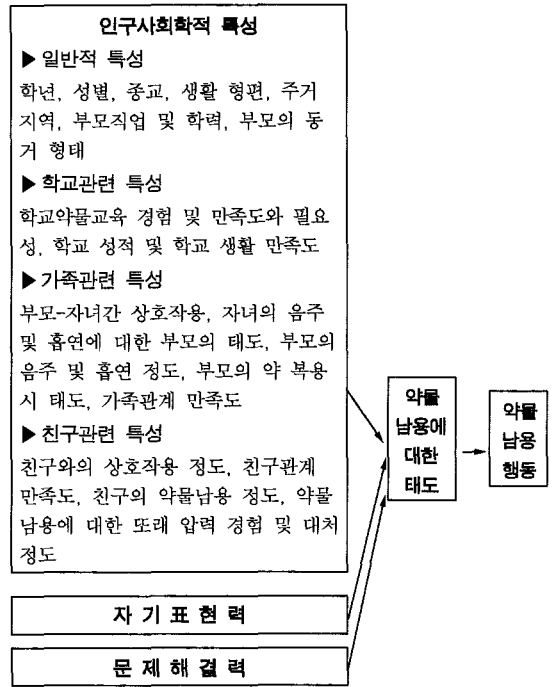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를 분석한다.

셋째, 자기표현력 및 문제해결력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를 분석한다.

넷째,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이론적 틀



2. 연구 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 하는 남녀공학 중학교 5개교에서 임의 표출한 1048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방법은 먼저 1998년 3월 19일에 일개 남녀

공학 중학교의 3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본 연구대상자에게 맞게 수정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8년 3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배포 및 수집은 본 연구자 또는 각 학교 양호교사가 학급에 들어가서 대상자들에게 유의 사항을 전달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보고 형식으로 응답하게 한 후, 즉석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여 총 45분간 실시되었다. 이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18명을 제외한 1030명(남학생 547명, 여학생 483명)의 응답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약물남용 태도 측정 도구는 김소야자 등(1993)과 이숙련 등(1995)의 도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도구로 총 4점 만점으로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남용에 대해 비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어 약물남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약물남용 행동 측정 도구는 본 연구자가 제작한 도구로 최근 한달 전까지의 사용은 과거 약물남용 행동군으로, 최근 한달 이내 사용자는 현재 약물남용 행동군으로 분류하였다.

자기표현력 측정 도구는 김성희(1990)의 주장척도를 예비조사를 거친 후 수정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을 잘 한다고 해석한다.

문제해결력 측정 도구는 Heppner(1982)의 PSI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예비조사를 거친 후 수정한 도구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다고 해석한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보면, 약물남용 태도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예비 조사와 본 연구 조사 모두 0.87이었고, 자기표현력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예비 조사 시의 0.88에서 본 연구 조사 시에는 0.89로 증가하였다. 문제해결력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예비 조사 시에는 0.91이었다가 본 연구 조사에서는 0.88로 감소하였으나 본 연구 조사에서도 이 도구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유지 되었다고 생각한다.

4.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연구목적별 통계 처리 방법은 학년별 성별

자기표현력, 문제해결력, 약물남용 태도는 평균, 표준편차, ANOVA, T-test, Duncan 검정으로, 학년별 성별 약물남용 행동은 빈도, 백분율, χ^2 -test로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약물남용 태도는 평균, 표준편차, ANOVA로, 자기표현력 및 문제해결력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는 평균, 표준편차, ANOVA, Duncan 검정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약물남용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은 Stepwise 중회귀 분석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II. 연구 결과 분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1학년 234명, 2학년 249명, 3학년 547명이고 남학생 547명, 여학생 483명으로 총 1030명이었다. 대상자의 종교는 각 학년(1학년 45.3%, 2학년 42.2%, 3학년 33.8%)과 남녀(남 36.9%, 여 40.2%) 모두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종교가 없는 경우이었는데, 고학년일수록 (1학년 24.8%, 2학년 25.7%, 3학년 32.6%) 또한 여학생(25.2%)보다 남학생(32.6%)이 무종교가 많았다. 생활형편은 보통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잘 사는 편이라는 대답이 약간 쪼들린다는 대답보다 많아서 스스로 중상정도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거지역은 대부분이 주택이 아파트 단지였다.

2) 부모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부모의 직업은 부의 경우 사무직이 가장 많았고, 모의 경우 주부가 대부분이었다. 학력은 부의 경우 대졸이상, 고졸 순서로 많았고, 모의 경우 고졸, 대졸 이상 순서로 많아서 비교적 고학력 수준이었다. 부모 동거형태는 대부분 두 분이 함께 살고 계셨고, 편부 보다 편모가 많았고, 이혼이나 별거도 1~2%나 되었다.

2. 자기표현력 및 문제해결력

자기표현력 및 문제해결력 점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자기표현력의 평균 점수는 총점 4점 만점에 1학년은 2.69점, 2학년은 2.71점, 3학년은 2.74점으로 비교적 자기표현을 잘 한다고 볼 수 있었다. 학년이 올

표 1. 자기표현력 및 문제해결력 점수

구 분	1학년 M±SD	2학년 M±SD	3학년 M±SD	F값	남 M±SD	여 M±SD	F값
자기표현력	2.69±0.44	2.71±0.37	2.74±0.34	1.59	2.72±0.34	2.72±0.41	0.19
문제해결력	3.84±0.79	3.75±0.77	3.91±0.73	4.10*	3.84±0.79	3.87±0.72	0.62
Duncan Grouping	A B	B	A				

*p<0.05 **p<0.01 ***p<0.001

라갈수록 자기표현력 점수가 높아서 자기표현을 잘 한다고 보여지나, 학년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남녀별로는 남녀 모두 2.72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문제해결력의 평균 점수는 총점 6점 만점에 1학년 3.84점, 2학년 3.75점, 3학년 3.91점으로 비교적 스스로 인지한 문제해결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3학년의 문제해결력 점수가 가장 높고, 2학년의 문제해결력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p<0.05 수준에서 3학년과 1학년, 2학년과 1학년의 학년간 문제해결력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3학년과 2학년의 학년간 문제해결력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2학년의 문제해결력이 가장 낮은 것에 대해서는 2학년 때는 1학년 때보다 새로운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나, 3학년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갖게되어 문제해결력이 높아진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남녀별로는 여자 3.87점, 남자 3.84점으로 여자의 문제해결력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3.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및 행동

1)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4점 만점에 1학년 3.44점, 2학년 3.40점, 3학년 3.20점으로 비교적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p<0.001 수준에서 각 학년 모두 차이가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태도 점수가 낮아서 고학년일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의 경우 남녀 모두 3.31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문항 4, 8, 9, 10의 점수는 비교적 높아서 학생들의 현재 약물 사용 의도는 적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문항 15의 점수는 비교적 낮아서 장래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의사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문항 16의 점수도 비교적 낮아서 학생들이 마스크의 광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흡입제에 대한 issue를 다룰 때 문제해결력에 대해 교육하여 광고비판력이 증가되었다는 Freimuth(1997)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물남용과 관련된 광고의 비판적 수용을 위해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문항 2, 5, 6의 점수는 학년별 차이가 많아서 고학년일수록 스트레스 해소로 약물을 남용할 의사가 있으며, 약물남용에 대해 교사나 부모 같은 권위 있는 인물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의사를 보였다.

성별 차이를 보면, 문항 4에 있어서만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 보다 유의미하게 높아서, 성과 관련하여 약물을 사용하려는 의도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인 태도 점수에서 성별간 차이가 없었던 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윤주 등(1995)의 연구에서 어른이 되어 흡연할 의도(p<0.01), 친구 흡연 시 따라 피울 의도(p<0.01), 흡연이 멋있다는 느낌(p<0.01), 마스크의 흡연 장면에 대한 느낌(p<0.01)에 대해 여학생의 태도 점수가 높아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중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숙련 등(1995)의 연구에서는 음주나 흡연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다(p<0.001), 어른이 된 후의 음주나 흡연 의사가 있다(p<0.001), TV 등에서 음주나 흡연 장면을 보면 멋있어 보인다(p<0.05)의 문항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높아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2) 약물 남용 행동

(1) 흡연 행동

흡연 경험도는 표 4 처럼 3학년의 24.1%, 2학년의

표 2. 약물남용 태도 점수

문항	1학년	2학년	3학년	F값	남	여	T값
	M±SD	M±SD	M±SD		M±SD	M±SD	
1. 기분이 좋아지는 약물이 있다면 한번쯤 사용하고 싶다.	3.59±0.73	3.56±0.68	3.32±0.85	13.31***	3.46±0.79	3.43±0.80	-0.58
2.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음주나 흡연을 할 수도 있다.	3.54±0.72	3.38±0.78	2.89±0.91	61.10***	3.20±0.88	3.10±0.89	-1.90
3.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한두 번쯤 약물을 써보는 것은 괜찮다.	3.58±0.67	3.65±0.57	3.33±0.80	20.13***	3.47±0.74	3.46±0.72	-0.31
4. 약물을 써서라도 이성친구를 마음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3.67±0.65	3.77±0.52	3.54±0.74	10.44***	3.52±0.76	3.74±0.54	5.32***
5.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결정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다.	3.47±0.84	3.22±0.87	2.98±0.88	27.38***	3.12±0.93	3.17±0.85	0.88
6.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결정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다.	3.56±0.76	3.38±0.85	3.04±0.84	36.31***	3.23±0.88	3.25±0.82	0.38
7. 친구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약물을 한두 번 써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3.57±0.67	3.51±0.66	3.44±0.74	2.79	3.49±0.69	3.49±0.72	-0.05
8. 약물을 통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약간의 후유증은 무시해도 좋다.	3.75±0.56	3.68±0.52	3.57±0.63	8.71***	3.62±0.61	3.66±0.57	1.00
9.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두 번쯤은 약물을 사용해 보고 싶다.	3.70±0.65	3.66±0.63	3.49±0.73	10.10***	3.58±0.66	3.58±0.73	-0.08
10. 약물의 값이 싸다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3.73±0.57	3.71±0.57	3.54±0.70	10.84***	3.59±0.66	3.66±0.63	1.69
11. 약물을 남용하여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	3.37±0.99	3.40±0.87	3.42±0.82	0.29	3.37±0.89	3.43±0.85	1.17
12. 약물을 남용하면 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3.16±0.99	3.13±0.93	2.84±0.97	13.02***	3.00±1.00	2.96±0.94	-0.61
13. 약물을 남용하면 폐인이 될 수 있다.	3.36±0.90	3.31±0.88	3.36±0.77	0.35	3.35±0.83	3.35±0.82	-0.00
14. 음주나 흡연은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을 준다.	3.63±0.66	3.55±0.70	3.32±0.78	17.61***	3.45±0.73	3.44±0.77	-0.15
15. 어른이 된 후에는 음주나 흡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2.66±0.98	2.52±0.92	2.34±0.91	10.65***	2.46±0.97	2.45±0.91	-0.30
16. TV나 신문 광고 등에서 음주나 흡연하는 장면을 보면 멋있어 보인다.	3.23±0.93	3.09±0.93	2.94±0.96	8.02***	3.07±0.96	3.01±0.94	-0.96
평 균	3.44±0.53	3.40±0.42	3.20±0.49	26.40***	3.31±0.49	3.31±0.51	-0.03

*p<0.05 **p<0.01 ***p<0.001

(무응답자 제외)

표 3. 약물남용 태도 점수의 학년별 Duncan Grouping

구분	Duncan Grouping		
	1학년	2학년	3학년
약물남용 태도	A	B	C

17.7%, 1학년의 20.1%가 흡연을 경험 한 바 있어 학년간 차이가 있었다(p<0.01). 특히, 3학년의 12.8%

는 현재 흡연자로 2학년의 4.0%, 1학년의 6.4%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27.8%, 여학생의 14.7%가 흡연한 경험이 있어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남학생에서 현재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과거 흡연자가 차지하는 비율 모두 여학생보다 높았다. 최초 흡연시기는 1학년과 2학년은 초등학교 4~6학년 때가 가장 많았으나, 3학년은 중학교 때가 가장 많았

표 4. 흡연 행동 정도

행동특성	구 분	1학년 실수(%)	2학년 실수(%)	3학년 실수(%)	χ^2	남 실수(%)	여 실수(%)	χ^2
흡연 경험도	비흡연군	187(79.9)	205(82.3)	415(75.9)	18.372**	395(72.2)	412(85.3)	25.906**
	과거(한 달 이전) 흡연군	32(13.7)	34(13.7)	62(11.3)		90(16.5)	38(7.9)	
	현재(최근 한달 이내) 흡연군	15(6.4)	10(4.0)	70(12.8)		62(11.3)	33(6.8)	
최초 흡연 시기	피워본 적이 없다	187(79.9)	205(82.4)	415(75.9)		395(72.2)	412(85.3)	
	초등학교 이전	8(3.4)	6(2.4)	10(1.8)		21(3.9)	3(0.6)	
	초등학교 1-3학년	3(1.3)	5(2.0)	9(1.6)		9(1.6)	8(1.7)	
	초등학교 4-6학년	32(13.7)	18(7.2)	25(4.6)		55(10.1)	20(4.1)	
	중학교	3(1.3)	13(5.2)	83(15.2)		63(11.5)	36(7.5)	
	무응답	1(0.4)	2(0.8)	5(0.9)		4(0.7)	4(0.8)	
현재(최 근한달 동안) 흡연 빈도	피운 적이 없다	219(93.6)	239(96.0)	477(87.2)		485(88.7)	450(93.2)	
	일주일에 하루 정도	10(4.2)	5(2.0)	29(5.3)		32(5.8)	12(2.5)	
	4-6일에 하루 정도	1(0.4)	0(0.0)	2(0.4)		1(0.2)	2(0.4)	
	2-3일에 하루 정도	2(0.9)	3(1.2)	12(2.2)		10(1.8)	7(1.4)	
	하루에 1회 이상	2(0.9)	1(0.4)	27(4.9)		18(3.3)	12(2.5)	
	무응답	0(0.0)	1(0.4)	0(0.0)		1(0.2)	0(0.0)	
현재(최 근한달 동안) 흡연량	피운 적이 없다	219(93.6)	239(96.0)	477(87.2)		485(88.7)	450(93.2)	
	하루 1개피	11(4.7)	6(2.4)	31(5.7)		32(5.9)	16(3.3)	
	하루 2-5개피	4(1.7)	2(0.8)	27(4.9)		19(3.5)	14(2.9)	
	하루 6-10개피	0(0.0)	1(0.4)	5(0.9)		4(0.7)	2(0.4)	
	하루 11-20개피	0(0.0)	0(0.0)	4(0.7)		3(0.5)	1(0.2)	
	하루 20개피 이상	0(0.0)	0(0.0)	3(0.6)		3(0.5)	0(0.0)	
무응답	0(0.0)	1(0.4)	0(0.0)		1(0.2)	0(0.0)		
계		234(100.0)	249(100.0)	547(100.0)		547(100.0)	483(100.0)	

*p<0.05 **p<0.01 ***p<0.001

고, 남녀 학생 모두 중학교 때 가장 많이 흡연을 시작했다. 현재 흡연 빈도는 각 학년 모두 일주일에 하루 정도가 가장 많았고, 남학생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가 여학생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와 하루에 1회 이상이 가장 많았다. 현재의 흡연량은 각 학년과 남녀 모두 하루 1개피로 가장 많았다.

(2) 음주 행동

음주 경험도는 표 5 처럼 3학년의 63.6%, 2학년의 37.7%, 1학년의 41.0%가 음주를 경험 한 바 있어 학년간 차이가 있었다(p<0.01). 특히, 3학년의 21.0%는 현재 음주자로 2학년의 10.8%, 1학년의 9.8%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58.1%, 여학생의 45.5%가 음주한 경험이 있어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남학생에서 현재 음주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과거 음주자가 차지하는 비율 모두 여학생보다 높았다. 최초 음주시기는 1학년과 2학년은 초등학교 4-6학년 때가 가장 많았으나, 3학년은 중학교 때가 가장 많았

고, 남학생은 초등학교 때 여학생은 중학교 때 가장 많이 음주를 시작했다. 현재 음주 빈도는 각 학년과 남녀 모두 한달 간 1회가 가장 많았다. 현재의 음주량은 각 학년과 남녀 모두 한번에 한잔 정도가 가장 많았다.

(3) 기타 약물남용 행동

기타 약물남용 행동은 표 6에 나타나 있다.

기타 약물남용 행동의 학년별 및 성별의 차이는 표 7에 나타난 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 약물남용 이유

본 연구 대상자들의 약물남용 이유는 표 8와 같다. 대상자의 33.6%가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하여 라고 대답했으며, 11.6%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혹은 친구의 권유로 라고 대답하여, 본 연구 대상자의 주된 약물남용 이유는 호기심 또는 또래의 영향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표 5. 음주 행동 정도

행동특성	구	분	1학년 실수(%)	2학년 실수(%)	3학년 실수(%)	χ^2	남 실수(%)	여 실수(%)	χ^2
음주 경험도	비음주군 과거(한 달 이전) 현재(최근 한달 이내)	음주군	138(59.0)	155(62.3)	199(36.4)	63.981**	229(41.9)	263(54.5)	16.511**
		음주군	73(31.2)	67(26.9)	233(42.6)		223(40.7)	150(31.0)	
		음주군	23(9.8)	27(10.8)	115(21.0)		95(17.4)	70(14.5)	
최초 음주 시기	마셔본 적이 없다 초등학교 이전 초등학교 1-3학년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무응답		138(59.0)	155(62.3)	199(36.4)		229(41.9)	263(54.5)	
			25(10.6)	19(7.6)	32(5.8)		50(9.1)	26(5.4)	
			15(6.4)	9(3.6)	32(5.8)		38(7.0)	18(3.7)	
			52(22.2)	41(16.5)	117(21.5)		128(23.4)	82(17.0)	
			2(0.9)	25(10.0)	163(29.8)		98(17.9)	92(19.0)	
			2(0.9)	0(0.0)	4(0.7)		4(0.7)	2(0.4)	
현재(최 근한달 동안) 음주 빈도	마신 적이 없다 한달 간 1회 한달 간 2-4회 거의 매주 2-3일에 한 번씩 거의 매일 무응답		211(90.2)	222(89.2)	432(79.0)		452(82.6)	413(85.5)	
			20(8.5)	22(8.8)	89(16.3)		76(13.9)	55(11.4)	
			3(1.3)	5(2.0)	19(3.5)		15(2.7)	12(2.5)	
			0(0.0)	0(0.0)	3(0.5)		1(0.2)	2(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2)		1(0.2)	0(0.0)	
현재(최 근한달 동안) 음주량	마신 적이 없다 한번에 1잔 정도 한번에 2-3잔 정도 한번에 4잔 이상 무응답		211(90.2)	222(89.2)	432(79.0)		452(82.6)	413(85.5)	
			20(8.5)	19(7.6)	62(11.3)		57(10.4)	43(8.9)	
			2(0.9)	8(3.2)	28(5.1)		23(4.2)	15(3.1)	
			1(0.4)	0(0.0)	21(3.9)		13(2.4)	9(1.9)	
			0(0.0)	0(0.0)	4(0.7)		2(0.4)	3(0.6)	
			계	234(100.0)	249(100.0)	547(100.0)		547(100.0)	483(100.0)

*p<0.05 **p<0.01 ***p<0.001

** χ^2 -test 결과를 적지 않은 항목은 빈도수가 5이하인 cell이 있거나(성별), 그러한 cell이 20% 이상인 경우로(학년별) 적합한 검정에 의한 결과가 아니므로 제시하지 않았음.

표 6. 기타 약물남용 행동 정도

행동특성	구	분	1학년 실수(%)	2학년 실수(%)	3학년 실수(%)	남 실수(%)	여 실수(%)
흡입제 경험 정도	전혀 없다 1-2회 해 봄 3-5회 해 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33(99.6)	244(98.0)	538(98.3)	539(98.5)	476(98.6)
			1(0.4)	5(2.0)	8(1.5)	7(1.3)	7(1.4)
			0(0.0)	0(0.0)	1(0.2)	1(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각성제 경험 정도	전혀 없다 1-2회 해 봄 3-5회 해 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29(97.9)	245(98.4)	533(97.4)	532(97.3)	475(98.3)
			4(1.7)	4(1.6)	13(2.4)	14(2.5)	7(1.5)
			0(0.0)	0(0.0)	1(0.2)	0(0.0)	1(0.2)
			1(0.4)	0(0.0)	0(0.0)	1(0.2)	0(0.0)
			0(0.0)	0(0.0)	0(0.0)	0(0.0)	0(0.0)
수면제 혹은 신경안정제 경험 정도	전혀 없다 1-2회 해 봄 3-5회 해 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226(96.6)	241(96.8)	526(96.2)	528(96.5)	465(96.3)
			6(2.6)	8(3.2)	15(2.7)	14(2.6)	15(3.1)
			1(0.4)	0(0.0)	6(1.1)	4(0.7)	3(0.6)
			0(0.0)	0(0.0)	0(0.0)	0(0.0)	0(0.0)
			1(0.4)	0(0.0)	0(0.0)	1(0.2)	0(0.0)

표 6. Continued

행동특성	구 분	1학년 실수(%)	2학년 실수(%)	3학년 실수(%)	남 실수(%)	여 실수(%)
마약류(대마초, 히로뽕, 몰핀 등) 경험 정도	전혀 없다	234(100.0)	247(99.2)	547(100.0)	547(100.0)	481(99.6)
	1-2회 해 봄	0(0.0)	0(0.0)	0(0.0)	0(0.0)	0(0.0)
	3-5회 해 봄	0(0.0)	1(0.4)	0(0.0)	0(0.0)	1(0.2)
	한 달에 한 번 정도	0(0.0)	0(0.0)	0(0.0)	0(0.0)	0(0.0)
	일주일 이상	0(0.0)	0(0.0)	0(0.0)	0(0.0)	0(0.0)
환각제 경험 정도	전혀 없다	234(100.0)	246(98.8)	545(99.6)	545(99.6)	480(99.4)
	1-2회 해 봄	0(0.0)	1(0.4)	1(0.2)	1(0.2)	1(0.2)
	3-5회 해 봄	0(0.0)	0(0.0)	0(0.0)	0(0.0)	0(0.0)
	한 달에 한 번 정도	0(0.0)	1(0.4)	1(0.2)	1(0.2)	1(0.2)
	일주일 이상	0(0.0)	0(0.0)	0(0.0)	0(0.0)	0(0.0)
계		234(100.0)	249(100.0)	547(100.0)	547(100.0)	483(100.0)

표 7. 기타 약물남용 행동 정도의 학년별 및 성별 차이

구 분	1학년 실수(%)	2학년 실수(%)	3학년 실수(%)	χ^2	남 실수(%)	여 실수(%)	χ^2
경험 무	221(94.4)	234(94.0)	505(92.3)	1.475	508(92.9)	452(93.6)	0.205
경험 유	13(5.6)	15(6.0)	42(7.7)		39(7.1)	31(6.4)	
계	234(100.0)	249(100.0)	547(100.0)		547(100.0)	483(100.0)	

*p<0.05, **p<0.01, ***p<0.001

표 8. 약물남용 이유(복수 응답)

구 분	실수	백분율 (%)
피로움을 잊고 기분이 편안해지기 위하여	73	9.7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하여	413	54.7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혹은 친구의 권유로	143	19.0
강한 힘을 얻기 위하여	7	0.9
멋있어 보이고, 더욱 남성(혹은 여성)다워지기 위하여	31	4.1
성적인 쾌감을 위하여	7	0.9
황홀감이나 무아지경울 느끼기 위하여	16	2.1
치료 및 수면 방지를 목적으로	13	1.7
기타(가족이나 친척 모임시)	18	2.4
무응답	34	4.5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2) 학교 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학교약물교육 경험 정도 별로 보면 약물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점수가 약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표 9.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점수

특 성	구 분	약물남용 태도 M±SD	F값
학년	1학년	3.44±0.53	26.40***
	2학년	3.40±0.42	
	3학년	3.20±0.49	
성별	남학생	3.31±0.49	-0.03(T값)
	여학생	3.31±0.51	
종교	기독교	3.43±0.57	3.01*
	천주교	3.25±0.62	
	불교	3.42±0.56	
	없음	3.40±0.62	
	기타	3.38±0.52	
생활 형편	아주 잘 산다	3.06±0.68	3.36**
	잘 사는 편이다	3.49±0.59	
	보통이다	3.38±0.58	
	약간 조들린다	3.40±0.62	
	아주 조들리는 편이다	3.08±0.96	
주거 지역	주택가	3.39±0.59	0.94
	아파트 단지	3.42±0.67	
	공장 지대	3.17±0.58	
	유흥가	3.67±0.50	
	시장·상가	3.17±0.75	
	빈민촌	3.25±0.96	
기 타			

들의 점수 보다 낮게 나왔다. 최초로 약물교육을 받은 시기별로 보면 초등학교 4~6학년 때 처음으로 받은 학생들의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는 약물남용 시작 시기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중학교 시기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에도 약물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본다. 경험한 학교약물교육의 만족도 수준별로 보면, 약물교육에 대해 만족할수록 태도 점수가 높았다. 따라서, 약물교육의 실시 횟수보다는 교육 내용이 대상자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또한 그러한 내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구성되었는지가 약물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관건이라 본다.

학교약물교육 필요성 인식 정도별로 보면, 필요하

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태도 점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의 점수 보다 높았다. 성적별로 보면, 성적이 상위권(1~5등) 또는 중 상위권(6~15등) 학생들의 태도가 하위권(31~50등) 학생들의 태도 보다 더 바람직하였다. 학교생활 만족도 별로 보면, 만족도가 낮을수록 약물남용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3) 가족 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1)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부모가 자녀의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있을수록 학생의 태도 점수는 높았고,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가 많을수록 학생의 태도 점수가 높았다. 부모가 자녀의 흡연이나 음주 허용에 대해 강경하게 불허할수록 자녀들의 약물남용 태도는 바람직하였다. 학생들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적을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는 가정에 불만이 있는 학생들이 약물남용을 더 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최순영, 1996; 이소영, 1997)와 일치한다.

(2) 부모의 약물남용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부모의 음주 정도별로 보면, 부의 경우 거의 안 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매일 마시는 경우가 가장 낮았다. 모의 경우 거의 안 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부모가 음주를 하는 경우 그 빈도가 잦을수록 학생들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부모의 흡연 정도별로 보면, 부의 경우 1일 한 갑 이상 피우는 경우 학생들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흡연 정도에 따른 태도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부모가 약 복용 시 의료인의 지시에 잘 따를수록 학생들의 태도 점수는 높았다.

4) 친구 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1) 친구 관계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표 4.4-1에 제시된 대로, 어울려 지내는 친구 수나 친구들을 만나는 빈도별로는 태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친한 친구 중 흡연자가 있는 경우가 그러한 친구가 없는 경우 보다 태도 점수가 낮았다. 친구 중 음주자가 있는 경우가 그러한 친구가 없는 경우 보다 태도 점수가 낮았으며, 음주하는 친구가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친구 중 흡입제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 그러한 친구가 없는 경우 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

표 10. 학교 관련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점수

특성	구분	약물남용 태도 M±SD	F값
학교약물교육 경험 정도	받은 적이 없음	3.55±0.53	3.91**
	1회	3.37±0.60	
	2-4회	3.36±0.60	
	5회 이상	3.40±0.63	
학교약물교육 받은 시기	최초로 유치원	3.55±0.53	6.71***
	초등학교 1-3학년	3.30±0.67	
	초등학교 4-6학년	3.36±0.61	
	중학교	3.43±0.58	
	중학교	3.26±0.63	
학교약물교육 만족도	받은 적이 없음	3.55±0.53	17.33***
	매우 만족한다	3.66±0.48	
	만족한다	3.44±0.57	
	불만족한다	3.27±0.59	
	매우 불만족한다	3.09±0.67	
학교약물교육 필요성 인식도	꼭 필요하다	3.59±0.56	27.56***
	필요하다	3.33±0.56	
	불필요하다	3.13±0.64	
	절대 필요 없다	3.18±0.61	
학급에서의 성적	1-5등	3.45±0.62	8.03***
	6-15등	3.47±0.55	
	16-30등	3.37±0.57	
	31-50등	3.22±0.65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3.64±0.48	17.66***
	만족한다	3.50±0.56	
	그저그렇다	3.34±0.58	
	불만족한다	3.21±0.55	
	매우 불만족한다	3.03±0.71	

*p<0.05, **p<0.01, ***p<0.001(무응답자 제외)

표 11. 부모-자녀 관계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점수

특 성	구 분	약물남용 태도 M±SD	F값
부모의 자녀 친구 인식 정도	전부 알고 계심	3.49±0.60	4.53**
	대충 알고 계심	3.39±0.59	
	잘 모르심	3.24±0.61	
	전혀 모르심	3.17±0.51	
부모와 대화 정도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눔	3.56±0.57	7.19***
	많은 대화를 나눔	3.45±0.58	
	보통 일상 대화만 나눔	3.33±0.59	
	별로 대화 없음	3.15±0.62	
	대화가 거의 없고 인사만	3.00±0.50	
	대화가 전혀 없음	3.33±0.58	
부모의 자녀 흡연 허용 정도	학생 때는 절대 안되고 어른이 된 후에도 안하는 것이 좋다	3.44±0.60	4.34**
	학생 때는 절대 안되나 어른이 된 후에는 해도 된다	3.30±0.55	
	학생 때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심	3.23±0.63	
	이야기하신 적 없음	3.33±0.60	
부모의 자녀 음주 허용 정도	학생 때는 절대 안되고 어른이 된 후에도 안하는 것이 좋다	3.49±0.59	10.72***
	학생 때는 절대 안되나 어른이 된 후에는 해도 된다	3.34±0.57	
	학생 때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심	3.17±0.60	
	이야기하신 적 없음	3.33±0.61	
학생의 가족관계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3.58±0.54	22.12***
	만족한다	3.42±0.55	
	그저 그렇다	3.20±0.65	
	불만족한다	3.07±0.65	
	매우 불만족한다	2.90±0.63	

*p<0.05, **p<0.01, ***p<0.001(무응답자 제외)

다. 이는 청소년기는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친구 중 약물남용자가 있을 경우 자신도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친구 관계 만족도별로 보면,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매우 불만족하는 경우 보다 태도 점수가 높았다.

(2) 또래압력 경험 및 대처 정도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흡연, 음주, 흡입제 사용에 대한 또래압력을 경험한 정도가 많을수록 태도 점수가 낮았으며, 자신도 원해서 한 경우의 태도 점수는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볼 때 또래 압력을 받을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점수가 낮아서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이는 또래압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수록 알콜 오용을 많이 한다는 Loveland-Cherry (1996)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약물사용을 많이 할수록 약물 사용에 대한 권유를 많이 받는다는 최순영(1996)의 연구 결과를 참

고할 때, 약물남용에 대한 또래압력과 약물남용 행동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악순환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또래의 압력에 대처하여 약물 사용 권유를 거절하는 의사표현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자기표현력 및 문제해결력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1) 자기표현력과 약물남용 태도

자기표현력 점수를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약물남용 태도 점수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자기표현력 점수가 단계별로 높아질수록 약물남용 태도 점수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자기표현을 잘 할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자기표현력 점수가 3.00~3.99점일 정도로 자기표현력이 뛰어난 학생은 약물남용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사료된다.

표 12. 부모의 약물남용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점수

특 성	구 분	약물남용 태도 M±SD	F값
부모 음주 정도	매일 마신다	3.18±0.66	2.97*
	1주일에 1-2회	3.40±0.58	
	부 1달에 1-2회	3.39±0.59	
	거의 안하심	3.46±0.60	
	안 계심	3.18±0.75	
모	매일 마신다	2.91±0.70	3.75**
	1주일에 1-2회	3.24±0.56	
	1달에 1-2회	3.37±0.59	
	거의 안하심	3.43±0.59	
	안 계심	3.67±0.58	
부	1일 한갑 이상	3.27±0.72	2.29*
	1일 반갑 정도	3.33±0.56	
	1일 2-3개피	3.43±0.59	
	부 1주일에 1-2회	3.51±0.57	
	1달에 1-2회	3.40±0.58	
부모 흡연 정도	안 피우심	3.44±0.57	1.21
	안 계심	3.18±0.75	
	1일 한갑 이상	3.17±0.75	
	1일 반갑 정도	3.14±0.90	
	1일 2-3개피	3.00±0.00	
모	1주일에 1-2회	3.67±0.58	7.85***
	1달에 1-2회	3.00±1.00	
	안 피우심	3.40±0.59	
	안 계심	3.67±0.58	
	부모의 의료인의 지시에 꼭 따름	3.42±0.60	
약 복용시 지시에 따르려고 하는 편	3.37±0.58		
태도 마음대로 복용하심	3.03±0.60		

*p<0.05, **p<0.01, ***p<0.001(무응답자 제외)

2) 문제해결력과 약물남용 태도

문제해결력 점수별 약물남용 태도 점수는 표 5.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문제해결력 점수를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약물남용 태도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0~1.99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문제해결력 점수가 단계별로 높아질수록 약물남용 태도 점수도 증가하는 추세였다. 그리고 문제해결력 점수가 0.00~0.99, 1.00~1.99, 2.00~2.99, 3.00~3.99, 4.00~4.99대인 학생과 5.00~6.00대인 학생의 약물남용 태도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잘 할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문제해결력 점수가 5.00~6.00점일 정도로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학생은 약물남용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태도를

표 13. 친구 관계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점수

특 성	구 분	약물남용 태도 M±SD	F값
친구 수	없다	3.44±0.62	1.97
	어울려 1명	3.07±0.83	
	지내는 2-3명	3.47±0.56	
	친구 수 4-5명	3.37±0.58	
	6명 이상	3.38±0.60	
친구들을 만나는 빈도	거의 매일	3.39±0.61	0.27
	1주일에 3-4번	3.36±0.56	
	1주일에 1번	3.40±0.59	
	한달에 1번	3.48±0.51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	3.38±0.65	
친한 친구 중 흡연자수	없다	3.50±0.54	38.85***
	친한 친구 1명	3.31±0.60	
	중 2-3명	3.07±0.50	
	흡연자수 4-5명	3.09±0.71	
	6명 이상	2.75±0.67	
친한 친구 중 음주자수	없다	3.48±0.54	31.28***
	친한 1명	3.33±0.52	
	친구 중 2-3명	3.16±0.60	
	음주자수 4-5명	3.11±0.66	
	6명 이상	2.74±0.69	
친한 친구 중 흡입제 사용자수	없다	3.41±0.58	10.49***
	친한 1명	3.20±0.77	
	친구 중 2-3명	2.82±0.60	
	흡입제 4-5명	3.00±0.77	
	사용자수 6명 이상	2.71±0.69	
친구관계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3.51±0.58	6.43***
	학생의 만족한다	3.35±0.57	
	친구관계 그저 그렇다	3.31±0.64	
	만족도 불만족한다	3.36±0.62	
	매우 불만족한다	3.00±0.79	

*p<0.05, **p<0.01, ***p<0.001(무응답자 제외)

가지고 있어서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사료된다.

6.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stepwise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표 17에 제시하였다. 약물남용 태도에 있어 설명력 있는 주요 변인은 문제해결력, 학년, 자기표현력, 종교 변인이었다. 이 중 학년이나 종교는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변화하기 힘든 변인인 반면, 문제해결력과 자기표현력은 학습을 통해 습득되는 변인이므로 이 두 가

표 14. 또래압력 경험 및 대처 정도에 따른 약물남용 태도 점수

특성구분	약물남용 태도 M±SD	F값		
흡연 에 대한 또래 압력	경험 정도 없다 한두 번 있다 계속 강요했다	3.47±0.55 3.11±0.66 2.61±0.61	44.94***	
	권한 적 없다 거절했다 대처 정도 마지 못해 했다 나도 원하는 바여서 했다	3.47±0.55 3.25±0.60 2.87±0.68 2.54±0.61		42.69***
	음주 에 대한 또래 압력	경험 정도 없다 한두 번 있다 계속 강요했다		
권한 적 없다 거절했다 대처 정도 마지 못해 했다 나도 원하는 바여서 했다	3.46±0.56 3.16±0.57 3.20±0.68 2.75±0.62	31.93***		
흡입 제에 대한 또래 압력	경험 정도 없다 한두 번 있다 계속 강요했다		3.40±0.59 3.18±0.64 2.80±1.10	4.62**
권한 적 없다 거절했다 대처 정도 마지 못해 했다 나도 원하는 바여서 했다	3.40±0.59 3.27±0.58 3.00±0.71 2.00±1.00		6.79***	

*p<0.05, **p<0.01, ***p<0.001(무응답자 제외)

지 변인에 약물교육의 초점을 둔다면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흡연 행동, 음주 행동, 기타 약물사용 행동에 있어 가장 설명력이 강한 변인은 약물남용에 대한

표 15. 자기표현력 점수별 약물남용 태도 점수

자기표현력 점수	약물남용 태도 M±SD	F값	Duncan Grouping
0.00~0.99	1.89±2.19	16.25***	A
1.00~1.99	3.22±0.61		A
2.00~2.99	3.28±0.46		A
3.00~3.99	3.41±0.49		B

*p<0.05, **p<0.01, ***p<0.001

표 16. 문제해결력 점수별 약물남용 태도 점수

문제해결력 점수	약물남용 태도 M±SD	F값	Duncan Grouping
0.00~0.99	2.31±1.49	15.79***	A
1.00~1.99	3.43±0.43		A
2.00~2.99	3.25±0.53		A
3.00~3.99	3.25±0.48		A
4.00~4.99	3.39±0.43		A
5.00~6.00	3.56±0.38		B

*p<0.05, **p<0.01, ***p<0.001

표 17. 약물남용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단계적 중회귀 분석

구분	변인	Partial R2	Model R2	C(p)	F
약물남용 태도	문제해결력	0.067	0.067	181.851	73.42***
	학년	0.051	0.117	118.349	58.89***
	자기표현력	0.016	0.133	99.483	19.09***
	종교	0.009	0.143	89.393	11.17***
흡연행동	약물남용 태도	0.158	0.158	184.077	192.89**
	성별	0.019	0.177	159.048	23.46***
	자기표현력	0.007	0.183	151.577	8.23**
	문제해결력	0.009	0.192	141.358	10.79**
음주행동	약물남용 태도	0.178	0.178	126.922	22.92***
	학년	0.016	0.195	106.020	20.81***
	친한 친구 중 음주자 수	0.012	0.206	91.932	14.82***
	성별	0.009	0.215	81.245	11.81***
	친구를 만나는 횟수	0.007	0.222	73.335	9.30**
	자기표현력	0.002	0.224	72.629	2.54
	생활 형편	0.002	0.226	72.149	2.33
기타 약물 남용 행동	약물남용 태도	0.056	0.056	41.733	60.98***
	최초로 학교약물교육 받은 시기	0.006	0.062	36.893	6.62*
	경험한 학교약물교육의 주체	0.002	0.064	36.436	2.38
	부모의 약 복용 시 태도	0.003	0.067	34.886	3.45
	가족 관계 만족도	0.004	0.071	32.324	4.45*
	부의 음주 정도	0.002	0.074	31.857	2.41

*p<0.05, **p<0.01, ***p<0.001

태도였고, 특히 흡연 행동에 있어서는 태도와 성별 이외에 문제해결력과 자기표현력이 설명력이 있었다. 따라서, 약물남용 행동에는 약물남용 태도가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약물남용 태도에는 문제해결력과 자기표현력이 영향을 미치므로, 문제해결력과 자기표현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면, 약물남용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도록 할 수 있고, 이는 약물남용 행동에도 영향을 주어서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약물교육을 실시할 때는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자기표현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는 다양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IV. 결론 및 제언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되는 중간 이행기로 자아정체감 형성이라는 어려운 발달과제를 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 자아혼란감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약물의 유혹에 취약하기 쉽고, 일단 청소년 시기에 약물남용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 후 폐인이 되기 쉽고, 한 번 시작한 약물남용을 쉽게 중단할 수 없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및 행동과 그 관련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5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임의 표출한 1048명을 대상으로 1998. 3.30부터 4. 15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한 후 최종적으로 1030명의 응답자료를 연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점수는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현재 약물사용 의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래 흡연 음주에 대한 의사는 비교적 바람직하지 못했고, 마스크의 흡연 음주 광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또한 고학년일수록 스트레스 해소로 약물을 남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약물남용에 대해 교사나 부모 같은 권위자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의사를 보였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약물남용 태도에 있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태도가 더 바

람직하였다.

2. 흡연과 음주 행동에 있어 학년별 성별 차이가 있어 3학년의 현재 흡연 음주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인 경우 여학생 보다 과거 현재의 흡연 음주 경험률이 더 높았다. 최초 흡연 음주 시기는 1, 2학년은 초등학교 4~6학년 때, 3학년은 중학교 때가 가장 많았다. 타 연구와 비교 시 본 연구 대상자들의 담배 흡입제 수면제 사용 경험률은 높았으나, 술 각성제 마약류 사용 경험률은 낮거나 비슷하였다. 약물남용 이유의 대부분은 호기심과 또래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3. 약물남용 태도에 있어 고학년일수록 태도 점수가 낮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를 지니고 있었으나 성별간 차이는 없었고, 천주교인 경우와 경제 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경우에 태도 점수가 낮았다. 학교 약물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태도 점수가 낮았고, 초등학교 4~6학년 때 최초로 약물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학교약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경우에, 성적이 높은 경우에,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태도가 바람직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친구를 잘 알고 대화를 많이 할수록, 부모의 자녀 흡연 음주에 대한 허용도가 강경할수록, 학생의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모가 약물남용을 안 할수록 학생의 약물남용 태도는 바람직하였다. 친구 중 약물남용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친구가 없는 경우 보다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으며, 약물남용에 대한 또래압력을 받을수록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았다.

4. 자기표현을 잘 한다고 인지할수록, 문제해결력이 뛰어나다고 인지할수록 약물남용에 대한 태도 점수는 높았다. 약물남용 행동에 있어 약물남용 태도가 가장 설명력이 강한 변인이었고, 약물남용 태도에는 문제해결력과 자기표현력이 설명력 있는 주요 변인이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요인(학년, 종교, 경제적 수준)과 학교 관련 요인(학교약물교육 경험도 및 필요성 인식도, 성적, 학교생활 만족도), 가족 관련 요인(부모-자녀 관계, 자녀의 약물남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의 약물남용 행동,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 관련 요인(약물남용 친구 유무, 또래압력 경험도) 등의 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자기표현력과 문제해결력도 약물남용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약물남용 태도가 바람직할수록 약물남용 행동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이 호기심과 또래의 영향에 의해 약물남용을

하게 되는 동기의 숨겨진 부분에는 불안, 우울, 자존감, 자아정체감, 가정과 사회의 환경 등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자기표현력과 문제해결력의 신장은 약물남용 태도를 바람직하게 변화시켜서 약물남용 행동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또래의 압력에 대처하여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비롯한 문제들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등을 신장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대상자의 사회적 환경 및 발달단계를 고려한 적절한 학습내용과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갖춘 학교약물교육을 통해 가능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1. 강윤주, 서성제: 국민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 개입효과에 관한 연구 - 흡연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8**(1), 133-142, 1995.
2. 김성희: 비주장행동 원인별 주장훈련 방법이 주장행동에 미치는 효과 비교, 제명대 박사학위 논문, 1990.
3. 김소야자: 청소년 성장 발달과 간호, 수문사, 1987.
4.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대책-양호교사의 약물교육 효과 연구, 연세교육과학, **42**, 199-256, 1993.
5. 아들러, 김인자 역: 인간관계와 자기표현, 중앙적성 출판사, 1984.
6. 이소영: 서울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약물사용 관련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7. 이숙련, 김정순: 부산 시내 중 고등학생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남용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8**(2), 257-275, 1995.
8. 주왕기: 약물남용, 세계사, 1989.
9. 최선화: 약물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적 개입 모형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91.
10. 최순영: 고등학교 여학생의 약물사용 실태와 약물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6.
11.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교육 교재 -강사용,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 1995.
12. Freimuth, V. S., Plotnick, C. A., Ryan, C. E. & Schiller, S.: Right turns only: an evaluation of a video-based, multicultural drug education series for seventh graders,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5), 555-567, 1977.
13. Heppner, P. P., Hibel, J., Neal, G. W., Weinstein, C. L. & Rabinowitz, F. E.: Personal problem solving: a descriptive study of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6), 580-590, 1982.
14. Loveland-Cherry, C. J., Leech, S., Laetz, V. B. & Dielman, T. E.: Correlates of alcohol use and misuse in fourth-grade children: psychosocial, peer, parental, and family factors, *Health Education Quarterly*, **23**(4), 497-511, 1996.
15. Rakos, R. F. & Schroeder, H. E.: Self-directed assertiveness training, NewYork, BioMonitoring (BMT), 1980.